

‘대학’을 다시 생각해 보자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시점의 시대적 의미는 참으로 복합적이다. 문명사적인 발전 단계상 정보 사회로의 진입을 요구받고 있으며, 세계화의 무대로 부름받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생적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적 추세와 국제적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적 구조 위에 정보사회적 요소가 덧붙여져 있고, 세계화에 요구되는 감각에 적합하지 않은 각종 제도와 의식 구조를 미처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듯 모순과 이율배반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화·세계화 등의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우리의 특수한 사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IMF 위기의 의미도 이러한 시각에서 명확히 조명될 필요가 있다. IMF 위기의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의 의미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IMF 위기의 심각성도 바로 이러한 사실에 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세계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의 문턱에서, 아니 어쩌면 그 한복판에서 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화 시대는 개방과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이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다른 어떤 생산 수단의 가치보다 중요시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무기로 삼아 선진국들과 생존과 번영을 위한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시기에 IMF 위기라는 난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의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그 어느 것보다 효율적인 생산의 수단이며, 높은 부가가치의 근원이고, 강력한 경쟁 무기인 것이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교육의 막중한 책임과 소명 의식은 이러한 사실에서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이제까지의 우리 사회와 교육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비합리적인 사고와 부

한국교원대 총장 우 종 옥



도덕한 생활 태도가 만연했으며, 교육 분야에서조차 비과학적이고 비창의적인 요소들이 많았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에 참다운 교육이 부재했음을 입증하는 현상들이거니와, IMF 위기를 맞아 바로 이런 문제들이 가장 먼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우리 교육의 낙후성을 입증하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과업의 주도적인 역할은 교육, 그것도 특히 대학교육이 기꺼이 떠맡아야 한다는 명제는 거의 당위적이라 하겠다. 대학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 대학간·학문간 국제 경쟁을 이끌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의 논의는 과연 대학의 진정한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대학이 과연 대학 자체와 구성원들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창의성 있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 숭고하고 원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 기관인지를 혼동하게 만든다. 현재 대학사회에는 중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에 두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자율을 존중하고 창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와 인류에 공헌해야 한다는 대학사회의 본질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대학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의 모범이 되고 그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대학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이 이러한 본질적 요청을 외면할 때 대학과 대학교육에는 커다란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의 고통은 나라의 고통, 겨레의 고통으로까지 바로 이어지게 된다는 데 대학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 어마어마함이 있다. 오늘 우리 대학에 부여된 책임의 무거움은 가히 세계를 짊어진 아틀라스의 곤비함에 비교할 만한 막중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